

+ 찬미예수님

누군가를 용서하는것이 너무나도 힘들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며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칠때, 우리안에 계신 성령님께 모든것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은총 가득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

2017년 6월 4일 성령 강림 대축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23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주임신부 이야기

상쾌한 하루 맞이했나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사막에서 살게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황량함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마침내 친정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도 싫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끔찍한 지역이랍니다.”

그녀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그녀는

진흙이 아닌 별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사막의 꽃인 선인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근처 인디언의 말과 풍습과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사막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

좋은 책을 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요? 좋은 일들 그리고 피하고 싶고 잊고 싶은 일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바뀌고 미래도 바뀝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우리의 삶 안에서 늘 그분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간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간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지냅시다. ^^

=====

2017년 5월 다섯째주 공지입니다.

[지난행사]

빈첸시오 무료급식 저녁 봉사 (5/25 목)

이웃사랑 실천의 5월 무료급식 저녁봉사에 수고한 장 익 가밀로, 김정호 이나시오 형제님들, 감사합니다!

걷기행사 준비 작업 (5/28 주일)

청년회 기금마련 걷기행사(6/4)를 위한 선물, 풋말 등을 만드는 작업에 함께 봉사해주신 차아름 루시아, 류은정 골룸바, 권창모 미카엘, 김정호 이나시오, 홍상미 세레나, 전진영 베로니카, 그리고 뜨락회 김수연 안젤라, 심혜란 에스텔, 윤미리 밀드레드, 최정희 라파엘라, 손상우로 베르또, 전영진 알베르또, 김강훈 그레고리오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멋진 사진들을 만들어준 박수현 프란치스코 형제님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여럿이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행사날 봉사 및 진행에 대한 의논과 더불어 정성스레 당일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야외미사 걷기행사 홍보/후원금 접수 봉사 (5/28)

아침미사 후와 교종미사 전, 후 친교실에서 홍보와 후원금 접수에 봉사해주신 안해준 야고보, 류은정 골룸바, 이윤지 소피아, 차아름 루시아, 홍상미 세레나, 김정호 이나시오, 전진영 베로니카, 그리고 뜨락회 최정희 라파엘라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주보나눔 봉사(5/28)

주보나눔 봉사에 수고해주신 류은정 골룸바, 그리고 권창모 미카엘 자매/형제님, 감사합니다!

영어미사 (5/28 주일)

우리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준비하는 세번째 영어 미사가 지난 주일 오후 4시에 있었습니다. 준비와 전례에 수고한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미사에 참례해 주신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영어미사가 생소하고 참례자도 적지요. 그러나 함께 연습하고 노력하면 머지 않아 한국어 미사와 같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미사 드리며, 주위의 영어권 신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미사가 될 것입니다. 벌써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우리 영어미사에 참례한 분들도 몇 분 계시답니다. 모두들 힘을 모아 정성스레 영어미사를 준비하고 참례 하면서 주님안에서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 - 6/3 (토)까지 신청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을 함께할 님들을 모집합니다.

주보에는 지난 주일(5/28)이 신청 마감일로 돼 있으나 신부님께서 청년들은 특별히 6/3일 토요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하셨으니, 관심있는 님들은 재빨리 사무실(standrewoak@gmail.com)로 신청하세요. 청년 신청자가 많으면 청년 모임을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 깊게 접하고 나눔으로써 우리 삶에 대해 성찰하고 배울수 있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의 성서모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야외미사 하모니/뜨락회 후원 기금마련 걷기행사 (6/4 주일)

드디어 걷기 행사날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걷기행사는 교종미사 전, 오전 9시반에 야외미사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행사 셋팅과 준비를 위해 봉사자들은 (가능한 모든 하모니/뜨락님들) 아침 8시까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아침식사가 제공됩니다. 후원자 풋말 설치, 접수/출구 테이블 셋팅, 참가자 스티커 및 기념촬영, 후원자 선물, 포스터 설치 등의 준비와 더불어 신나는 음악과 소고로 흥을 돌을 것입니다~ 다같이 걷기행사에 참여하여 즐겁게 봉사하고,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는 훈훈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교우분들 및 5개 성당 - 트라이밸리, 산호세, 세크라멘토, 몬트레이, 샌프란시스코-의 정성스런 후원으로 \$9,000에 가까운 후원금이 모아졌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언제나 사랑으로 청년들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야외미사 (6/4 주일)

우리 공동체 야외미사가 6/4일 주일날 예년과 같은 장소 Joaquin Miller Park에서 있습니다. 성당에서의 교종미사는 없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일 하모니/뜨락회 기금마련 걷기 행사가 오전 9:30 ~ 10:30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 2017년 6월 4일(주일), 오전 11시

장소: Joaquin Miller Park, 3450 Joaquin Miller Road Oakland, CA, 94611

주보 나눔 봉사자 (6/4 주일)

최보나 가브리엘라 자매님, 감사합니다!

주보 나눔 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홍상미 세레나 자매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

이번 주일(6/4)은 부활 시기를 마무리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로 이번 주일까지만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을 '다' 양식으로 합니다.

'다'양식: "십자가의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 부활시기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시기로 예수 부활 대축일(4/16)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6/4)까지 50일간 계속됩니다.**

만남의 성경모임 - 6/17 토

조 마오로 수녀님과 함께하는 루카복음 만남의 성경모임이 6/17 토요일 오후 2시에 소망방에서 있습니다. 말씀과 나눔을 접하는 은총 가득한 이 시간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6월 17일 토, 오후 2시-4시

장소: 소망방 (사제관 건너방)

가톨릭 성서 가족 모임 - 6/18 주일

그동안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성서모임을 하나라도 마친 분들을 대상으로 6/18일 주일 교종미사 후에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님들, 달력에 찜! 해놓으세요.

일시: 6월 18일 주일 점심식사 후 - 오후 6시 (점심 제공)

장소: 교육관 106호실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님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이름표: 이름은 우리의 존재요, 이름을 익히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심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당에 있을 때에는 미사 전후를 비롯 항상 이름표를 부착해 주세요. 이름표 분실시에는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